

공해방지용 쓰레기처리 인공 꽃동산 겸 공원묘지 건축구조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산업쓰레기, 폐기물, 생활오물과 각종 공사장 잔토등을 일정한 장소에 끌어모아 그 표면을 흙으로 덮어쓰워 공해방지용 인공꽃동산을 축조하여 그 넓은 공간을 수목과 화초를 심어 다시 공원묘지등으로 활용하는 구조체에 관한 연구이다.

더욱 상세히는 해발 약 10미터 이상에서부터 물이 침투되지 않는 고지대로서 쓸모없는 인근 야산부근 잡종지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로 선정, 확보하여 그 주위를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흡사하게 토사로 울타리를 치면서 중앙에서부터 일정한 높이로 서서히 각종 쓰레기와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교차로 적치하여 악취가 풍기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올려 인공으로 자연스럽게 공해를 방지하면서, 그 표면을 인근야산을 깎아서 나오는 흙을 덮어쓰워 수목과 화초를 심어 꽃동산을 조형하여 그 넓은 공간을 다시 공원묘지등으로 이용하며 인근 야산을 깎은 자리를 택지활용하는 것으로서 인간사회에서 공해로 가장 난처한 쓰레기 퇴치에 공헌하는 쓰레기처리 공해방지용 인공꽃동산 겸 공원묘지 건축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李明春

대전건축사사무소

by Lee, Myoung-Choon

본 연구는 종래의 쓰레기 처리방식과 비교하여 살펴 보건데 소각하든지 흙구덩이를 파서 묻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분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재생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이중공해를 유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소각할때는 소각로를 축조하여 일부 쓰레기만 선별 소각하여 이중공해를 유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둘째 흙구덩이를 파서 지하에 쓰레기를 묻을때는 침수가 되어 수질을 오염시켜 다시 이중공해를 유발하며 흙을 파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세째 쓰레기를 분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재생할때는 또다시 그 공장설비와 생산비 등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며, 재생과정에서 다시 이중공해가 발생하는 등 종래의 세가지 쓰레기 처리방식은 그 막대한 비용과 이중공해를 유발하여, 영원히 지구상에서 공해를 추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인근야산을 깎아 인류사회의 공적이며, 장차 지구가 멸망한다고까지 하는 각종 쓰레기 공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산을 깎아 다시 인공 꽃동산을 만들어 각종 쓰레기 공해추방과 공원묘지 조성 및 깎은 산 자리에는 택지로 조성하며, 기왕의 수많은 공동묘지를 순차적으로 인공 꽃동산으로 이장하여 그곳을 다시 택지 혹은 위 인공 꽃동산으로 재생하여, 좁은 국토를 넓게 활용할 때, 수천, 수만년 후가되면 위 인공꽃동산속에 쓰레기는 화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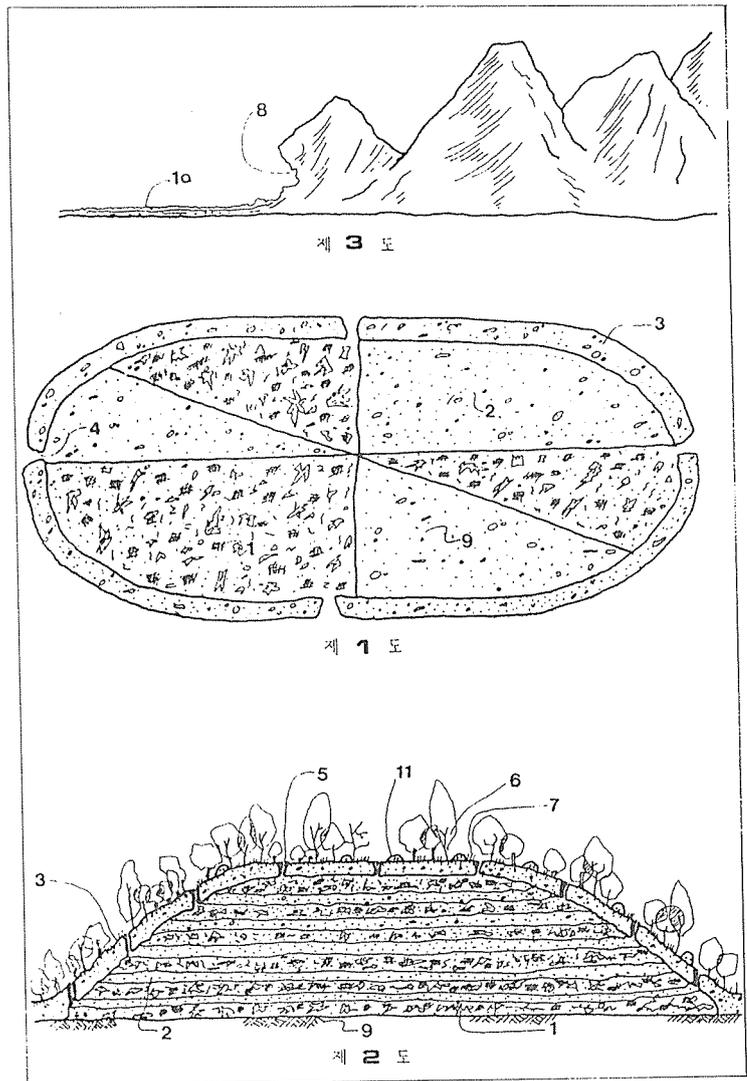
쓰레기처리 공해방지용 인공 꽃동산 겸 공원묘지를 축조함에 있어,

첫째 : 해발 약 10미터 이상서부터 물이 침투되지 않는 고지대를 택하여 각종 쓰레기적치장(9)를 선정하고, 산업쓰레기, 폐기물, 생활오물(1)등을 통로(4)를 통하여 집하 하며, 적치장(9)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에 확산하면서 각종 공사장에서 잔토(2)를 끌어모아 교차로 인공쓰레기 동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기존 인근야산(8)을 깎아 운반하여 쓰레기적치장 주위를 토사로 두께 5미터이상 울타리 표토(3)을 구축하면서 경사지 표토면에 약 5,000평방미터당 1개소씩 가스폭발방지

공기탑(5)을 세우며, 수목(6)과 화초(7)등을 심어 인공꽃동산을 구축하는 것이며, (단 공기탑은 실험에 의거 폐지할 수도 있다)

둘째 : 위와같이 인공 꽃동산이 완공되면 거대한 공간에 수목(6)과 화초(7)을 심은 사이에 분묘(11)을 안장하며 문자 그대로 화려한 공원묘지 건축구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셋째 : 인근 기존야산(8)을 깎아 쓰레기적치장(9)를 축조함에 있어서 야산(8)을 깎은 자리는 넓은 공간의 택지(10)로 자동 확보되어 좁은 국토 이용율을 더욱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지구는 다시 살아나고 지구촌의 사람들은 쓰레기 공해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구상의 모든 동, 식물과 곤충류는 공해에서 살아남아 인류와 더불어 끊임없이 공존할때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모든 공해쓰레기는 영원히 땅속에서 수천, 수만년을 경과하는 동안 화석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며 표면은 흙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동산과 공원묘지로 지속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 ① 남지도 쓰레기 처리장
- ② 쓰레기 처리 인공꽃동산 건축구조 도면